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1월 5일(금)
--(음력 10월 1일)--
Пятница
5 ноября 2021г.
№ 42 (1195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4일은 러시아 단결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민들의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러시아 전 지역에 QR코드 시스템 실시

모스크바, 타스 통신은 러시아의 모든 85개 행정자치 지역들에서 공공 장소 방문을 위한 큐알코드(QR code) 시스템 실시에 대해 11월 1일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각 지역에서 다른 날짜에 시작됐는데 12월 중순쯤 시행할 지역도 있다. 앞서 사할린주 정부는 큐알 코드(QR code)가 지역 사업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줄 것이라 판단해 큐알 코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10월 2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려면 큐알코드(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코로나 19 완치 후 6개월 지난 자, 코로나 19 피씨알(PCR) 검사 음성 판정, 백신 접종 면제에 대한 서류)을 제시해야 한다.

'고르니 워즈두흐', 올 스키 시즌에 전 러시아 경기 개최 준비

러시아 알파인 스키 스포츠 연맹의 왈레리 쟈가노브 부회장이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 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슬로프를 점검하고, 단지의 개발 계획을 알아 보았다.

올 겨울 시즌에 '고르니 워즈두흐'에서는 러시아 선수권 대회, 러시아 컵 및 극동 컵 알파인 스키 경기들을 개최할 계획이다.

왈레리 쟈가노브 부회장은 경기 개최와 관련하여 만족감을 표하고 높은 수준의 경기가 열릴 것이라 확신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사업가들에게 보조금 지급

주 중심의 행정부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중소기업체들에게 보조금 제공을 위한 이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개월간 4개 분야 18개 업체들에 지원한 자금 총액은 1천420만 루블리이다. 올초부터 재정 지원 명목의 자금 공급에 대한 결정이 12개 분야, 73개의 지원금 방식으로 7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채택된 가운데 총 지급액은 2천100만 루블리며, 이 중 1천170만 루블리는 사할린주 예산의 보조금이다.

11월 4일은 러시아 단결의 날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국민 단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날은 러시아의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은 함께일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국가가 위협받을 때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국적, 신념, 재산을 가진 이들이 침략자들에게 대항하고자 함께 단결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분쟁의 시대가 끝나고, 러시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의 성과와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할린주 주민들이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새 집을 짓고,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하고 공동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동료들이 곁에 있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즐거운 기념일 되십시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과 쿠릴 주민 5만 명, 심층 건강검진을 받아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심층 건강검진으로 제때 질병이 발견돼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은 국내에서도 유례없는 사할린 진료센터 활동의 결과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는 14개의 진료센터가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뿐만 아니라 티몹스코예, 오하, 포로나이스크, 토마리, 유즈노쿠릴스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첨단 진료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65세 이상의 모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왈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시네고르스크, 흠스크, 우글레고르스크의 지역 중심에서는 매일 첫 심층연구센터가 문을 연 상담진단센터 입구에 섬 각지의 주민들을 태운 버스가 정차한다. 건강검진이 필요한 환자 그룹은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각 환자들에게는 치료를 위

한 사전 접수가 필요한데 이는 몇몇 진료 절차에 급기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체들은 교통편을 제공하고, 버스 노선을 조직해 환자들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하도록 돕고 있다.

각 진료센터에서는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은 종합 검사나 정밀 검사로 이동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호흡기 계통을 검사하고 여성의 생식기 시스템과 암 발병 위험을 검진하고 있다.

1년간 종합검진 덕분에 수천 개의 질환이 발견되었고, 진료센터의 환자들 중에는 응급 입원을 하기도 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의료활동의 추진이 지속되고 있다. 조만간 쿠릴 진료센터에 컴퓨터 단층촬영과 유방 조영술과 같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 도입 후에는 이곳에 심층연구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 갓 잡은 생선 260톤 이상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판매

올초부터 사할린 각 지역들에서 소매가 이하의 가격으로 신선한 생선 판매가 형성되고 있다. 이 사업 활동이 2021년 3분기 실적을 결산하는 주지사와 주정부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사할린의 수산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생선들이 왜 사할린 지역에서는 해외 시장가격으로 팔리고 있는지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바뀌어야 한다. 연초부터 우리는 신선한 생선을 중간인 없이 운송 비용이나 소매 가격을 최소화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현재 조업이 이뤄지지 않는 외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 2회 특별하게 신선한 생선이 공급되는 소매점들이 수산업 종사자

들과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는 자동 응답 전화기로 신선한 생선 판매 시간, 장소, 어종,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수산청 사이트에서도 게시하고 있다.

"올초부터 신선한 생선 260톤 이상이 판매되었다. 이 중 20톤은 세웨로 쿠릴스크 지역들과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마카로브, 노글리키, 오하, 흠스크 등지에 무료로 제공했다. 어종도 조업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생선 판매처에는 송어, 연어, 홍송어, 코류슈카, 명태, 대구, 가자미, 나와가, 임연수, 청어, 열비어, 루드 등 12종의 생선들이 있다."고 사할린주 수산청의 이완 라드첸코 청장이 말했다. 주지사는 수산물의 어종을 확대하고, 더 많은 수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이 방면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 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러시아 한민족 청년들에게 교육과 과학을 대중화하도록

재러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조광춘 회장과의 인터뷰

일전에 모스크바에 다녀간 본 사 **배순신** 기자가 러시아에서 널리 활동하는 사회단체 재러한인 과학기술자협회 **조광춘**(러시아 성명 조 드미트리) 회장과 만나 인터뷰를 부탁했다. 사할린 출신인 그는 기술학 준박사이며 국립 연구중대학교 «МЭИ 모스크바 전력공학대학» 교수다.

-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1977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7 기술 리체를 졸업한 뒤 모스크바 전력공학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대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고요. 현재 모스크바 전력공학 대학 발전소 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 회장으로 계신 재러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과학기술자협회와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왜 이 단체에서 활동하기로 하셨습니까?

- 과학기술자협회는 오늘날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과학자, 교육자, 전문가,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연합한 지역 간 사회단체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회원 대부분이 동포입니다. 처음 과학기술자협회가 형성되던 시기(1990년대 초기)에는 과학기술 분야 대표자들만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문 전공을 비롯하여 여러 과학 분야의 전문가, 연구

와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여러 분야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2007년에 처음으로 과학기술자협회를 접하고 가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맞는 동료들을 만나고 친해졌습니다. 이들은 저처럼 젊고 야망이 있는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었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드미트리는 가입 얼마 후 사무국장직을 담당. - 기자주.)

- 회장직을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함께 활동을 하는 팀이 비교적 젊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2019년에 재러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회원(운영위 위원 - 기자주.)들의 평균 나이는 약 35세 정도 됩니다. 이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봅니다. 성숙하고 지성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매우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팀원들이 있는 거죠.

- 과학기술자협회는 러시아 동포 중에서 과학 및 교육의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힘쓰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는 매년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술자협회의 주요 행사는 매년 8월 말에 열리는 '러시아-한국-독립국가연합' 국제학술대회(한·러·CIS 학술대회)입니다. 작년에, 올해도 이 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으



로 성공적으로 진행했구요. 그리고 해마다 연말에는 젊은이들을 위해 별도로 청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청년대회는 11월 19-2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합니다.

원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많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청소년 행사는 한민족 청년들 중에서 과학 및 교육 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에서 과학은 지루하고 돈이 안되고 말도 안되게 어렵다는 강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난 이후 참가자들의 눈에 관심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됩니다.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능력의 경계를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청년학술대회 외에도 우리는 매년 러시아의 최소 한 지역에서 청년 세미나를 개최 하기 위해 노

력합니다. 작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에서 세미나를 열었고, 올해는 노위시비르스크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학교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연례 수학경시대회(올림피아드)를 열고 있고, '올해 최고의 과학자'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올해 최고의 전문가'와 '올해 최고의 젊은 과학자'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과학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추진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많아요?

- 한국의 연구기관과 생산적인 협력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그 협력이 매우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러·한 기관들이 협정한 경우가 있긴 해요. 한 예로 연례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한국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과학자들이 다수의 러시아 연구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 방문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모스크바 전력공학 대학교와 공동 과학연구를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기술자협회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이며, 회장님께서서는 한국어를 하시지요?

- 이 강좌의 특징은 전문 과학 용어에 중점을 둔 말하기 위주의 수

업이라는 점입니다. 한글과 기본적인 한자도 배웁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강좌를 실시했거든요. 저의 한국어 수준은 기초 수준입니다. 집에서 러시아어로만 대화합니다.

-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만 과학에 관심이 있는지요?

- 두 아들은 학교 학생들인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저는 가끔 제 딸이 좋은 과학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호기심은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가가 생기면 무엇을 하시나요? 특별한 취미를 갖고 계신지요?

- 자유시간은 별로 없지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이 보통일지도 모르죠.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야외에서 아이들과 뭔가를 하려고 해요. 겨울에는 가족들과 스키나 스케이트를 타러 갑니다. 여름에는 축구를 하고요.

- 고향 사할린에는 자주 방문하시나요?

- 매년 새해에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고자 노력합니다. 가서 친지들을 방문하고 스키를 타러 갑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러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모저모

국제 콩쿨의 대상 '루스키 켈렘' 사할린 민요 앙상블에게 수여

'루스키 켈렘(러시아의 통나무집)'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현대 민요 앙상블이 2개의 국제적 단계 경연에서 단번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 앙상블의 단장인 안드레이 멜니첸코에 따르면 2개의 경연대회는 공연 수준으로 대단했다고 전했다. 소치에서 열린 <아쿠아 템프 플러스> 축제 경연에서 사할린 앙상블은 러시아의 민요 '몰로드카, 몰로드카(아가씨, 아가씨)'를 합창으로 불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틱 해안의 가을> 축제·경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인 '오, 산분꽃나무 피네'를 불러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할린의 앙상블은 합창과 가무 2개 부문에 참가했고, '신테즈' 무용단은 2개의 축제 경연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루스키 켈렘' 앙상블의 엘리자베타 폴리툰은 소치 경연에서 첫 최우수상을 수상,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연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저는 민요 부문에서 솔로와 '러시아의 켈렘' 앙상블로 출전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경연에 사할린을 대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대상을 2번 수상한 것을 안 순간 정말 감동했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엘리자베타 폴리툰은 감동을 전했다.

현재 '루스키 켈렘(러시아 통나무집)'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최고의 앙상블일 뿐만 아니라 사할린주 전체의 자랑이기도 하다. 민요 앙상블은 일본, 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큰 상은 '루스키 켈렘' 우승의 역사에 찬란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이 전했다.

Гран-пр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присудили сахалинскому ансамблю "Русский терем"

Известн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ансамбль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сразу двух конкурс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Как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ансамбля Андрей Мельниченко, оба конкурса были очень сильными по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му уровню.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фестивале Akva-Temp+ в Сочи коллектив представил русскую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Молодка, молодка" а капелльн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жюри фестиваля "Прибалтийская осень" покорило самобытное исполнение ансамбля всеми любимой песни "Ой, цветет калина".

Отметим, островной коллектив участвовал в двух направлениях — вок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и хореография. Так, 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Синтез" ансамбля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первой премии обоих конкурсов.

Кроме этого, участница ансамбля "Русский терем" Елизавета Политун взяла первую лауреатскую премию в Сочи, 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заняла 3 место.

— Я выступала как с сольной народной программой, так и в составе "Русского терема". Мы были очень рады представлять Сахалин на конкурсах такого уровня. А когда узнали, что получили оба гран-при — это что-то незабываемое! Много эмоций, — поделилась Елизавета Политун.

Сегодня "Русский терем" — не только один из лучших коллектив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и гордость вс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Ансамбль, активно выступающий с концертами в Японии, Корею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АТР,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культурным послом Сахалина. И эта масштабная награда станет еще одной яркой страницей в истории побед "Русского терема", сообщает мэр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9개월간 22,500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전자상으로 연금재단 방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러시아 연금재단의 62개 서비스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인상 상호작용은 신청자의 편리한 시간과 기간 단축을 위해 증명서, 서류, 재단 측의 지급 등록 및 연금 이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연금재단 사이트의 개인 계정에는 연금, 사회적 보조금, 출산 자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면, 등록자 및 미등록자에 따른 모든 서비스가 구축돼 있다.

'증명서 및 서류 발급', '접수 예약', '주민 문의', '온라인상문의' 등의 항목은 등록 없이 접할 수 있다. 나머지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연금재단의 서비스(다양한 신청서 제출)는 개인 정보 이용을 요청하므로 국가서비스 사이트에 각 개인(국민)의 인증된 계정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국가서비스 사이트에서 등록 및 계정 확인, 암호 복구를 원하는 사람은 평일 근무일에 러시아 연금재단 고객센터에 문의(사전 예약 접수)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권과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접수 시간과 날씨는 연금재단 사이트 (예약 접수)의 개인 계정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사할린 지부 러시아 연금재단 사이트의 '지역 주민 정보' 항목('주민' 세부 항목)에 제시되어 있다. 예약 접수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휴대전화에 '러시아 연금재단 전자 서비스' 무료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사할린 지부 러시아 연금재단의 보험 및 고객 상담을 위해 내선전화(8 (800) 600 07 48)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되는 이 전화번호(유·무선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연금재단 측이 밝혔다.

За 9 месяцев 22,5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братились в ПФР в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Для удобства граждан 62 услуги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на сайте учреждения.

(8면에 계속)

사할린 한인문화센터15주년 기념행사
<장인들의 박람회>에서 책거리 체험



지난 30일(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장인들의 박람회>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가 진행되었다.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과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축제는 이미 4년째 실시되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가 지원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 줌'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축제는 이번에 돌린스크, 흠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 학생들과 사할린국립대 한영과 대학생 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체험축제의 주제는 '책거리'이다. <책거리는 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을 그린 그림이다. '책'은 책(冊)을, '거리'는 대상이나 소재임을 의미한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행하였으며 왕에서 서민까지 전 계층의 사람들이 향유했던 그림의 종류로, 책과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의 문화를 보여준다. 책가도(冊架圖), 문방도(文房圖)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매해 한국 문화 체험 축제를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고민 끝에 책거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사할린에서 잘 모르고 있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책거리' 인기가 많아졌다."고 한국 공예에 관심이 많은 임 엘비라 학장이 전했다. 그는 이날 체험실을 열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책거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여 책거리의 의미와 역사를 간단히 소개했다.



책거리는 궁중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양반계급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책거리는 다산, 장수, 출세 등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날 2부로 활동교실을 지도하는 사할린 국립대 디자이너 나탈리아 코텐코는 학생들에게 미리 준비한 그림 이미지와 이에 따라 화판에 어떻게 색칠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책거리 체험은 사할린에서 처음이라 학생들과 함께 이들을 인솔한 교사들도 색칠에 빠졌다. 분위기에 맞춰 큰 화면에서는 가야금 소리도 들려주었다. 두 시간 이상 예술창작에 빠진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하여 색칠을 하며 만족해 했다. 주최 측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책거리 체험 수료증도 전달하고 많은 기념 사진도 촬영했다. 내년엔 <장인들의 박람회>문화체험 축제는 5돌을 맞이하는 가운데 벌써 주최 측은 내년엔 어떤 주제로 축제를 펼칠지 고민하고 있다. 이번 문화체험 축제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 주민들에게 러시아 연방 보안국 전화번호를 사칭한 사기꾼들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사할린관리국에서 사할린 주민들에게 불법적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해 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경고했다. 전화 사기범들은 현대적 기술을 이용해 국가기관에 속한 전화인 것처럼 속이고, 국가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모르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설득한다. 주민들에게 자금을 이체시키도록 하면서 연방 보안국 직원 행세를 하거나 사할린 지부 러시아 연방 보안국 담당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것

처럼 재현할 수도 있다. 혹시 국가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개인 정보나 비밀번호, 핀코드, 은행 카드 정보 및 자금을 이체시키도록 독려하면 즉시 대화를 끊고, 본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혹시 전화하는 상대방이 사할린 지부 러시아 연방 보안국을 사칭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전화 72-44-41로 걸어 본 기관의 관리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 사할린관리국 보도자료)

"2021 제23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성인 부문 대상에 사할린동포 박영자 "3대에 걸친 약속"

KBS 한민족 체험수기 사상 처음으로 사할린동포가 대상 수상, 사할린주 4세 코스타, 지난해 청소년 부문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한민족상으로 한국 거주 사할린 4세 싸프로노브 안드레이가 청소년 부문 우수상 수상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사회공헌방송부 부장 황형선)은 <2021 제23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성인 부문 대상에 사할린동포인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박영자 씨의 <3대에 걸친 어머니의 약속>을 선정했다. 박영자 씨는 사할린동포 최초로 KBS 한민족 체험수기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민족방송은 중국 동북 3성을 비롯해 CIS 지역과 러시아 사할린,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고려인,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해 6개 부문 22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KBS 한민족 체험수기에 사할린 동포들이 참여해 3명이 수상을 했다.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박승의 前 러시아 사할린국립종합대 교수의 <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와 영주귀국한 사할린한국어교육회회 공노원 부회장의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리더>가 한민족상을 받았으며 러시아 사할린 흠스크시 주 코스타 학생의 <저는 주 코스타입니다>가 청소년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사할린동포들이 한민족 체험수기에 참여했으며 그중에서 박영자 씨가 성인 부문 대상, 사할린동포 4세인 사할린 흠스크시 주 코스타 학생은 지난해 청소년 부문 대상에 이어 올해는 <우리 가족의 삶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영상 부문인 한민족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 4세인 한국 인천광역시 서구 싸프로노브 안드레이 학생의 <나의 꿈>이 청소년 부문 우수상을, 사할린동포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사할린아리랑축제추진단 기미양 단장이 공로상을 받는 등 더 큰 성과를 거뒀다.

성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영자 씨의 <3대에 걸친 어머니의 약속>은 사할린에서 다시 일본으로 끌려가 이중징용을 당하게 되는 3대에 걸친 슬픈 가족사로 우연한 기회에 외할아버지 묘를 찾아 70년 만에 외할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리게 되는 이야기로 박영자 씨의 가족사를 통해 사할린동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2021 제23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성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사할린동포 박영자 씨

대상을 받은 박영자 씨는 사할린주 한인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한글학교 전 한국어 강사로서 "우리 3대가 겪은 가족사는 바로 사할린 한인의 역사이다.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KBS가 주는 이 대상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기 전에 사할린 한인 전체에 주는 상"이라며 "사할린에서 다시 이중징용으로 일본 탄광으로 끌려가서 타국에 묻히신 외할아버지님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민족상을 받은 주 코스타 학생은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는 KBS 한민족체험수기 상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할린 4세인 제가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할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저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계에서 문화 선진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1 제23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한민족상을 수상한 주 코스타 학생

청소년 부문 대상은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조선족학교 고중 3학년 리조영 학생의 <한국 그리고 우리 가정>이 차지했으며, 고려인에게 주는 특별상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남경자 씨의 <넓은 가요집>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전엘레나 씨의 <유랑 끝에 할머니 품에서 고향을 찾다>가 선정됐다. 또한 영상 부문인 한민족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인 전길운 씨의 <간병인 이야기>, 러시아 사할린에 거주하는 주 코스타 학생의 <우리 가족의 삶 이야기>가 각각 수상했다.

KBS 사회공헌방송부 황형선 부장은 "KBS 한민족 체험수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해로 23회째 매년 이어오고 있는 한민족방송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데 무엇보다 많은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동북아시아 동포들의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KBS한민족방송은 1980년대까지 사할린동포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한민족 체험수기를 통해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돼 정말 기쁘다."며 "지난해부터 사할린동포들이 한민족 체험수기에 참여했는데 올해는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사상 처음으로 사할린동포가 성인 부문 대상을 차지해 더욱 뜻깊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시상식을 거행하지 않고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2021 제23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수상작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https://program.kbs.co.kr/scr/radio/face/pc/board.html?smenu=906dc8&bbs_loc=R2002-0241-03-42958,list:none,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нижные полки и баклажан. Сахалинцев учат рисовать корейские натюрмор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ярмарк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уже четвертое подо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но посвящено искусству чхэккори (буквально – «книги и вещи») – это вид корейского натюрморта, где преобладающими предметами являются книги.

Проект совместно реализует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гра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посвятили нашу ярмарку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изображать картины книг. На таких картинах изображены, как правило, книги, канцелярски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и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символизировали образованность, достаток, процветание рода. Дворцовые художники могли зарисовывать огромные ширмы, на которых были изображены книжные полки, а на этих полках – различные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привозили из Китая,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Альтернатива этих огромных дорогостоящих ширм – такие картины, 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могли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приобрести и повесить в доме. Для любого образованного корейца, или если родители желали, чтобы сын выучился и стал чиновником, приобретали и вешали в доме такие картины. Даже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этим предметам – считалось, что это несет заряд энергии»,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филолог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львира Лим.

У каждого мастера есть холст, на котором изображен эскиз картины. Художник СахГУ Наталья



Фото: Мария Кондиус

Котенко учит, рассказывает – что, как и зачем изобража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такого мастер-класса не проводили еще ни разу.

«Участники для себя откроют очень много нового. Я уверена, сейчас они смотрят и не понимают, почему именно эти предметы изображены здесь: почему баклажан, почему гранат», – добавила Эльвира Лим.

Секрет в следующем. Овощи и фрукты, в которых много семян – символ процветания и продолжения рода. Поэтому картины именно с этими фруктами и овощами выбирали, чтобы повесить дома.

Ученики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Я на каждый мастер-класс сюда хожу. Мне нравятся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я рисовать очень люблю. У меня большинство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 корейцы, я с ними общаюсь очень хорошо», – рассказала участница мастер-класса Маша.

«Мне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могают понять культуру Кореи. У меня в семье все корейцы, а я родилась в России, поэтому хочу изучить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получше», – объяснила ученица Пах Хен Ни (Ксения).

(Мария Кондиус,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О Достоевском на разных языках

2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был посвящен круглый стол, недавно прошедший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рассматривали творчество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го писателя с филологическ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и обще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ой сторон.

Одни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стало изучение наследия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формате перевода книг писателя на многие языки. Так, директор ИФИИВ СахГУ Э.Х. Лим отметила высок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 свобод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Е.Н. Бачинина в докладе «Визуальный Достоевский: парадоксы восприятия на Западе и Востоке» рассказала, как читают произведения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Японии, в Америке и даже в Бразилии. Неожиданно было узнать о героях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художников-иллюстраторов.

Студентка У Сяосунянь в форме стендового сообщения подготовила свое письмо-обращение к Досто-

евскому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русском и китайском языках. По словам девушки, она открыла творчество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старшей школе, прочитав роман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И сегодня, чтобы глубже понять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изучает повесть «Двойник».

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А. Булгакова поделилась методическими приемами изучения латинского языка через реплики гербов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О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ри внимательном чтении мног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писателя-юбиляра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цитаты на древнем языке. А ведь это отличный способ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и познакомить студентов-медиков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через призму любимого дела и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О постижении смысла книг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говорили и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Находить отражени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других языков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необыкновенно увлекательно.

Александра Макеева, студентка ИФИИВ СахГУ

Нацелены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Вот уже около 30 лет в России больш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едет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НТО "АНТОК")».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Виктория Бя пообщалась с президентом АНТОК, кандидатом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Чо Гван Чуном (Дмитрием).



– Для начала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 себе. Где и когда родились, что окончили и когда, где и кем работаете.

– Я род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1977 год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технического лицея № 7 поступил и закончил Московски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Здесь же и работаю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должности доцента кафедры «Электрические станции».

– Представьте, пожалуйста, АНТОК, президент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есь. Как давно Вы вместе с АНТОК? Почему решили быть именно здесь?

– АНТОК сегодня – это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уче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удентов и аспи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Большинство наших членов являются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хотя это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На сегодня у нас нет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научному ил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членов АНТОК, хотя на этапе формир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АНТОК объединял лиш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ехнических дисциплин.

Я впервые узнал и приобщился к АНТОК в 2007 году. И сразу нашел здесь друзей-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Таких же как я, новоиспечен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ук, молодых и амбициозных.

– Сколько Вы уже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Насколько поняла, у вас относительно молодая команда.

– Президентом АНТОК я стал в 2019 году.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актива АНТОК примерно 35 лет. Это хороший показатель – у нас есть как зрелые и мудрые, так и молодые и энергичные.

– Знаю, АНТОК ведет очень больш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года является проводимая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ежегодн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Отдельно для молодежи в конце года мы проводим Молодежную науч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Вообще для молодежи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проектов. Наши молодеж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и семинары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научн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В обществе сильны стереотипы о том, что наука – это скучно, безденежно и безумно трудно. Иногда нам удается это изменить, и тогда мы видим интерес в глазах участников. Это круто,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еняет их отношение к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му труду, а значит и расширяет границы 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становиться ученым, но если тебя это не страшит, то шансы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ться повышаются.

Мы стараемся каждый год проводить молодежный семинар в одном из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аботали в ДВФУ (Владивосток). В этом – в Новосибирске.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онлайн Олимпиаду по математике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конкурс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включая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специалист года» и «Лучший молодой ученый года».

– Вы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те с учены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 вас много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ктивным, хотя отдельные продуктивные контакты с учены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вязываются. Например,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ряда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еными из Корейского НИИ КИТЕСН, проводимых в рамках нашей ежег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на выполне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науч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с НИУ «МЭИ». Есть и другие примеры.

– Увидела на сайте АНТОК, что вы проводили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чем их особенность? Кстати, Вы сами владеете корейским?

– Особенность этих курсов была в развитии навыков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с акцентом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научную терминологию. Изучение базовых иероглифов. Учебу проводили носители языка.

Я владею корейским на базовом уровне. Дома общаемся на русском.

– Сколько лет вашим детям? Проявляют ли они интерес к науке?

– Два моих сына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Они пока не определились, а я наблюдаю. Дочь ходит в сад, и ей все интересно. Иногда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она бы стала хорошим ученым, ведь любопытство, в нашем деле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 Чему посвящает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Ваши увлечения?

–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мало. Наверное, это нормально в наше время. Но если появляется, то занимаюсь чем-нибудь с детьм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Зимой ходим на лыжах или бегаем на коньках. Летом играем в футбол.

– Часто ли посещаете малую родину – Сахалин?

– Стараемся приезжать каждый Новый год с семьей – навестит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покататься на лыжах.

–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интервью. Желаем АНТОК успешного роста и процветани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призвал Пхеньян пригласить Папу Римского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1 ноя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звал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игласить Папу Римского Франциска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прогресс в усилиях по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в регио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было сдела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апа Франциск подтвердил готовность посетить Север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состоявшейся 29 октября в Ватикан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заявил, что визит Папы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становлению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ответ Папа сказал, что готов отправиться на Север, если получит приглашение. «Поскольку готовность Папы посет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дтверждена, мы надеемся на то, что Север проложит путь к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 ходе предыдущей встречи Мун Чжэ Ина с Папой Франциском в 2018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ередал Папе устное приглашение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он Ына, но визит не состоялся из-за тупика в ядерных переговорах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С 29 по 31 октября в РК выявлены 1.289 нарушителей карантинных правил

В период с 29 по 31 октября на вечеринках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Хэллоуин и личных встреча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ивлечены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1.289 нарушителей карантинных правил.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 ноября в Полици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При этом 259 нарушителей выявлены 29 октября, 630 человек – 30 октября, 400 человек – 31 октября. По данным полиции, сеульский район Итхэвон оказался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местом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вечеринки в честь Хэллоуина. Его, по данным полиции, за три дня посетили около 170 тыс. человек. Ресторан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Каннам-гу был закрыт за нарушение карантинных правил. Он работал в режиме ночного клуба, и в нём находились более 230 человек. В Пусане полиция выявила 23 случая нарушений, привлечены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195 человек.

Korea Sale Festa продлится с 1 по 15 ноября

С 1 по 15 ноября в РК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скидок и распродаж Korea Sale Festa, в котором,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2.053 компании. Они предлагают выгодные сделки как в интернете, так и в офлайн-магазинах. Это самый масштабный торговый фестиваль с 2016 года, когда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акция Korea Sale Festa.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и LG Electronics предлагают скидки до 40% на телевизоры, холодильники и другие бытовые товары. Крупнейшие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и, в том числе Hyundai Motor и Renault Samsung Motors., подготовили специальные скидки и подарки для покупателей. Модные бренды предлагают скидки до 80%. Универмаги, крупные сайты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мини-маркеты и другие розничные торговцы также подготовили акции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покупателей. Фестиваль совпал с началом первого этапа постепен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ли «жизни с COVID-19», отмеченного упрощё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вырос в октябре на 24%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объём зарубежных поставок составил в октябре 55 млрд 55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24% выше показателя того же месяц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Экспорт растёт 12-й месяц подряд,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ому мировому спросу н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и нефтепродукты. Импорт составил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53 млрд 86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37,8%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Профицит платёжного баланса составил 1 млрд 690 млн долларов. Экспорт превышает импорт 18-й месяц подряд.

В ноябре в РК состоится K-Food Fair

С 8 по 11 но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конференций и выставок КОЕХ пройдёт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K-Food Fair, на которой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продукция и готовы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Цель ярмарки - помочь отечественным компаниям выйти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5 ок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добавив, что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ярмарке представят около 200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В программе мероприятия -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и между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и покупателями из 24 стран, семинары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и онлайн-классы кулинарии.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с 1 ноября смягчаются антикоронавирусные правила

1 но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новые пра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ни подразумевают отмену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режних ограничений и начало периода "жизни с COVID-19", когда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относятся почти как к обычному гриппу и пытаются вернуть "докоронавирусную эпоху".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опасаются, что Южную Корею ждёт более мощная вспышка COVID-19, но большинство обычных людей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жизн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так как уже устали от длящихся почти два года ограничений.

Новые пра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раннего утра 1 ноября. Это также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начало постепен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хотя, конечно, о полной отмене ограничений говорить пока рано.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в Южной Корее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24 часа в сутки, а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ым можно встреча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увеличилось до 10-12 человек. Упрощается работа фитнес-центров,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станет возможным проведение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и концертов при большем, чем это было до сих пор, количестве зрителей. Разного рода послабления вводятся и по друг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Процесс перехода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когда к COVID-19 относятся почти как к простому гриппу,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збит на три этапа по шесть недель каждый. Все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им темпам вакцинации. По данным на 31 октября, в стране доля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от COVID-19 превысила 75%. Если же учесть, что молодежь до 18 лет пока не могла прививаться, 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доля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среди взрослого населения - уже более 87%.

Правда, власти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в конце каждого

этапа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четыре недели будет двухнедельный оценочный период, когда будет комплексно анализироваться общая обстановка. Если же произойдет мощная вспышка COVID-19 или нагрузка на медучреждения из-за роста количества больных станет более 80%, то возвращение к прежней жизни могут и отложить.

Пессимисты из числа некоторых экспертов прогнозируют, что из-за новых правил, когда люд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ее свободно общаться и передвигаться, очередная вспышка - это лишь вопрос времени, причём в сутки по пять тысяч новых больных при текущих двух тысячах ежедневно. Однако власти, с которыми согласно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считают, что уровень вакцинации позволяет пойти на такой риск, а люди если и будут заболеть, то уже в основном в легкой форме.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ть отныне тоже будут не всех подряд, а лишь тех, у кого состояние будет тяжелым, а также лиц в возрасте от 70 лет и старше.

Впрочем, о полном возвращении к прежней жизни пока в Корее речи не идет. Отмена ограничений растянется н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а некоторые меры, вроде ношения масок и лимита на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должат действовать. Кроме того, власти делаю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одтолкнуть то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которое отказалось от вакцинации, все-таки сделать себе прививки, а иначе в некоторые заведения непривитым вход будет закрыт либо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ограничен.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Корее надеются, что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же смогли преодолеть главный кризис. Местные авиакомпании и турфирмы уже докладывают о росте спроса на билеты и поездки за рубеж, по которым корейцы сильно соскучилис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Сфера туризма РК постепенно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й сектор РК постепенно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е агентства, большинство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ых находились в отпуске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заказов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сообщают о росте числа обращений клиентов и бронирований туров. Направлений, которые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е южнокорейцы могут посещать без прохождения карантина, пока немного. Это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Гуам, Сайпан, около 20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и Ближний Восток. Что касается Сайп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го субсидирует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виалини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ия туда новых рейсов. По словам туроператоров, поездки в страны Южной Азии активизируютс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РК откроет для их граждан свои границы.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пытаясь привлечь туристов в страну, представила на своих страницах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80-секундный видеоролик с участием звезды футбола Сон Хын Мина, который играет за английский клуб Tottenham Hotspur. В нём футболист представляет РК как турис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еклам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Сон Хын Мина размещена на городских автобусах в Лондоне. Благодар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РК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е турис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KBS World

Объявл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ъявляет о начале сбора заявок на принятие участия в тендере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Объем работ:

- установка теплого пола
- демонтаж и монтаж межкомнатных перегородок
- демонтаж и монтаж облицовочных панелей внешней стены здания
- монтаж теплоизоляцио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 укладка напольного покрытия ПВХ
- установка электрических сетей
- покраска внутренних стен
- установка межкомнатных дверей
- установка окон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ки: со 2 ноября до 12 ноября 2021

Заявки присылать на: RYPOSK@outlook.com

Формат заявки:

Наименование организации:

ФИО лица, представляющего организацию: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E-mail:

Сро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до 31 март 2022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хотят защитить жителей от ковида и не ухудш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основан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главного санитарного врач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и Фунтусовой на островах в пред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и последующий период вводя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е меры. Они призван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наце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защити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 инфекции и, вместе с тем, не нанести существенный ущерб экономике из-за ужесточения режима работы предприятий.

С 30 октября по 7 ноября все предприятия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структурно подчиненные орган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Также продолжат работу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детские сады,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на каникулах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лагеря с днев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пр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карантин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рше 60 лет, а также тех, кто имеет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но не сделал прививку и не переболел, призывают соблюдать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на дому.

Областной минздрав обеспечивает доступ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по иммунизации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жителям в возрасте 60+ и имеющим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Руководителям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разных форм собственности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выходные дни с сохранением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тем, кто желает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от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В период с 30 октября по 30 ноября работодателям рекомендовано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удаленной работы граждан из уязвимых категорий, не прошедших вакцинацию.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зрелищ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оказывают услуг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 23:00 до 6:00. Ранее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норма с 24:00 до 6:00. Исключения – обслуживание на вынос, услуги по доставке, общепи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эропорт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вокзалов, автовокзалов, на авто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ях.

Еще одно ограничение касается посещ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численностью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Доступ на данные площадки будет возможен при предъявлении электрон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с портала Госуслуг после пройденной вакцинации. Также получить такой документ могут переболевшие коронавирусом люди, имеющие официально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диагноз.

С 30 октября по 30 ноября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открытых площадках.

По информ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в связи с относительно стабильной эпидемиологией на островах дру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вводятся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не будут. При этом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сохраня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к интервальной рассадке людей. По-прежнему обязательным остается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 на транспорте, а также соблюд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дистанции.

Отметим, что в пятницу, 29 октября, в 12:00, состоится брифинг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МИ.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 актовый з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рла Маркса, 24).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об антиковидных мерах ответят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чук,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и минис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бласти Юлия Главинска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усилить кадровый состав в поликлиник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овещании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д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за три квартала 2021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вопрос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 островах.

Сегодня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ь врачевым составом в амбулатор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ом зве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дна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по стране.

– Тем не менее, люди рассказывают мне, что не могут быстро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задачи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ресурсы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ноября количество приемов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необход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врачей, пересмотрят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призывных комиссий. Сегодня, чтобы проверять здоровье новобранцев,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поликлиник на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привлекаются из поликлини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другие пациенты лишаю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нарушается еди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цикл в учреждении.

– Чтобы сократить временные потери, медосмотры призывников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сразу при поликлиниках. В этом случае специалист не выпадет из ле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й подход в любом медицинском мероприятии,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Резерв возможностей также остается в приведении штатного расписания к потребностям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Будет пересмотрена занятость сотрудников,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на проблемные участки работы.

Для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метод замещ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всегда применим. По нормативам Минздрава РФ количество врачей и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исходя из численности жителей.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будут шире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озможности телемедицины. Уже сейчас благодаря цифр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организуются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и между сельскими ФАПами и районными больницами. Количество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приемов будет наращиваться, в том числе и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и и федеральными медучреждениями.

В этом году 117 докторов повысили квалификацию на Сахалин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Обучен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по разным профилям – хирургия, педиатрия, онкология,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ия, эпидемиология, офтальмология,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ия, травматология, урология.

По программе «Сестра милосердия»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младш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112 сахалинцев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на базе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На островах открылись 14 центров соврем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доступно не только жител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и пр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ах в Тымовском, Долинске, Ногликах, Охе, Поронайске, Углегорске, Холмске, Южно-Курильске. С начала года современ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прошли свыше 4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олее 260 тонн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доступной рыбы реализовал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 этом году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на торговля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ой по ценам, ниже розничных.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были озвучены на совеща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котором подвели итоги за три квартала 2021 года.

– Островны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работаю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е, и это, безусловно, хорошо. Н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задают справедливый вопрос: почему рыб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ается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ценам? Эту ситуацию необходимо менять. С этого года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торговлю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ой без посредников, с минимальной розничн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наценко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у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где вылов сейчас не ведется,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продают дары моря напрямую от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Телефонный робо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оповещае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 месте и времени продаж, ассортименте и ценах. Информацию также публикуют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Там же размещают данные мониторинга стоимости рыбы.

– С начала года реализовали более 260 тонн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Из них 20 тонн раздали бесплатно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в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Аниве, Макарове, Ногликах, Охе, Холмске. Ассортимент меня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езона лова. На прилавках было 12 видов рыбы: горбуша, кета, кунджа, корюшка, минтай, треска, камбала, навага, терпуг, сельдь, мойва, краснопёрка,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ивать – увеличивать ассортимент даров моря, привлекать больш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расширению числа участков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К началу следующей путины будут сформированы 5 нов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ыл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на реках Лесогорка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Пильво (Смирновский), Новоселка (Томаринский), Бабушкина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и на морском участке от реки Матросская до мыса Округлый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ошли углубл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здоровья

Время выявлен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и десятки спасенных жизней – таков результат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их центров диагностики, не имеющих аналогов в стране. Год назад старт к открытию первого центра углублен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здоровья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Такая работа оказалась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и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новых точек.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ботают 14 центров. Диагностика по последнему слову техники доступна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в Тымовском, Охе, Поронай-

ске, Томар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и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До конца года мы хотим обследовать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рше 65 ле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инегорск, Холмск, Углегорск – каждый ден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озле крыльца КДЦ, где открылся первый центр углубл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автобус с жителям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острова. Группы формируются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из числа пациентов, нуждающихся в проверке здоровья.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необходим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рием терапевта, так как некоторы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имеют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я. Добрать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могают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 выделяют транспорт, организуют маршрут.

–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дает полную картину здоровья человека. От обычной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оно отличается большим набором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процедур. Пациентам это тоже удобно. Они проходят специалистов одного за другим, а в конце получают карту здоровья с дальнейшими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КДЦ Нина Мухина.

В каждом центре предлаг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диагностики. Пациент может быть направлен на комплекс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ли узкопрофильное – проверить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ый аппарат,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ую или бронхо-легочную систему, определить состояние женской репроду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или риски развития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Жительница планировочного района Луговое Светлана Захарова очень обрадовалась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йти комплекс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 Мне выдали приглашение на удобную дату. Сначала я пройду анализ крови, кардиограмму. После этого ещ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мне выявить какие-то неприятности в организме.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Не надо разрываться по специалистам, искать время, все в одном месте, – поделилась пациентка.

За год благодаря комплекс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были выявлены тысячи патологий. Иногда пациенты из центра диагностики направлялись на экстренную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ановк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компьютерного томографа и маммографа – в Курильской ЦРБ. После внедрения новой техники здесь также будет открыт центр углубл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концу года благоустроят почти 40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ускорить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уже завершено на 24 объектах, на остальных должно законч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ыбирают сами жите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в районах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места притяжения, где мож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с семьей и друзьями. Это большая, нужная работа, которую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должим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дером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ланируемых к ремонт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Здесь уж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4 сквера, работы на еще четырех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к 15 ноября.

–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как преобразуется пространство вокруг. Сразу хочется больше гулять, исследовать новые скверы и аллеи. На мой взгляд, важно, что не только обновляют ранее построенные скверы, но и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новые, вместо пустырей,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Анивы Виктория Кузнецова.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одились по всему региону. К примеру, в Долинске обновили парк «Дружбы», в Невельске – сквер памяти погибшим воина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Смирных – зону рекреацио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в Корсакове обустроили сквер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В селе Ново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овсем скоро появится сквер «Грушевый сад».

Одним из крупных объектов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л открывшийся в июне сквер Пограничник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которого началось в 2020 год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масштабных работ, проведенных в 2 этапа, пространство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образилось. Теперь это самое посещаемое место микрорайона.

– Ключевой задачей нацпроекта является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комфорт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С 2017 года в област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117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Работы проводятся не только в районных центрах, но и в селах.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площади, скверы, 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территории возле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и библиотек, пустыр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зоны отдыха,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Сергей Федор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иступят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набрали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голосов островитя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재단, 한국이민사박물관과 MOU 체결

재외동포 및 한인이민사 관련 자료 연구, 수집, 조사 및 재외동포 아카이브 추진을 위한 정보자원 공유 등을 위한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유동현)은 재외동포 및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보 및 자원의 공유와 연구를 위해 11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영근 기획이사 및 이주연 홍보문화조사부장, 유동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및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및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 연구, 수집, 조사 등 공동노력, ▲재외동포 아카이브 추진 관련 자료 공유·연계, ▲재외동포 및 한인 이민사 관련 수집 자료 가치평가 및 보존·전시 등 공동 협력을 위해서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영근 기획이사는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으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역사를 우리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속으로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시민, 재외동포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이며, 한인 이민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물 수집,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사할린 어르신 행복나눔 행사 가져

[파주/허윤기자] 파주시 문산읍(읍장 이재면)은 지난 10월 29일 선유주공아파트 3단지, 당동주공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시는 사할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없는지 안부를 여쭙며, 소고기, 햄류,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유각, 이효숙 시의원과 박승의 사할린영주귀국자회 회장이 참석했다.

선유주공아파트3단지외 당동주공아파트3단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 92가구 14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사할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어르신들의 향수를 달래고, 고립감 해소 및 행복한 노년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박승의 사할린영주귀국자회 회장은 "매년 정성껏 음식과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면 문산읍장은 "문산읍에 영주 귀국해 생활하시는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가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일보)

안산시새마을회, '사할린동포와 함께 막된장 만들기'

2021년 경기도 우리 동네 행복밥상 세 번째 사업

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열·협의회장 고태영·부녀회장 정상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 '2021년 우리동네 행복밥상'의 일환으로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는 막된장 만들기' 행사를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상록수 된장마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새마을 회원 20명이 함께 모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성껏 막된장을 담그고 포장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400개의 막된장은 상록구 이동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전달됐다.

임충열 안산시새마을회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고향마을 이웃들을 위한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새마을회는 '2021년 경기도 우리 동네 행복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흙뭍어르신 두부 만들기 및 다문화가정 고추장 만들기 체험행사'를 실시했고, 지난달에는 '청소년 취약계층에 돈가스 나눔'을 진행한 바 있다.

(안산인터넷뉴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K-스마트팜 준공

신북방 지역에 한국산 기자재·기술 활용한 진출 교두보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신북방 지역으로의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조성한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데모) 온실 준공식'을 10월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준공식에는 한국 측에서 김중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카라슈케예프 에르블 시라크파에비치 농업부 장관, 바탈로프 아만디 가비소비치 알마티도 주지사, 예스폴로프 틀렉테스 이사바에비치 국립농업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스마트팜 기자재·인력·기술 등을 패키지로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시범 온실 조성, 전문인력 파견, 현지 인력교육, 데이터 활용,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북방 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신남방 지역인 베트남 등 2개국에 시범 온실 조성·운영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작년 4월에 스마트팜 관련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K2 Agro Farm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범 온실 준공을 통해 우리 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범 온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유통 등도 활성화한다.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가 데모 온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카자흐스탄 대학생, 농업인이 우리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데모 온실 내 관리동에는 현지 바이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액기, 온실개폐모터, 온실용 비닐, 비료 등 한국 스마트팜 기자재를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했다.

향후, 시범 온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데모 온실 운영·관리 지원), 농림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 코트라(시장조사·마케팅 지원)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카라슈케예프 에르블 시라크파에비치 카자흐스탄 농업부 장관은 "이번에 준공된 시범 온실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카자흐스탄 농산물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 재학생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중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시범 온실 준공을 계기로 신북방 지역으로의 K-농업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2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카자흐스탄에 준공된 시범 온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충북대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학술지 '러시아학', 한국연구재단 재인증평가에서 등재지 유지 판정

충북대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러시아학'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사업에서 '등재지 유지' 판정을 받았다고 1일 전했다.

'러시아학'은 지난 2005년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8월 23호까지 발간했다. 러시아 관련 충북 유일의 등재학술지인 '러시아학'은 러시아 및 유라시아, 알타이지역의 언어, 문학, 문화를 비롯하여 역사, 정치 등을 두루 다루고 있는 전문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대 국립대학육성지원사업 '학술지 지원사업'을 통해 발간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학'은 지난 2015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18년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등재지로 상향조정된데 이어 3년 후 진행된 이번 재인증 평가에서도 '등재지 유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최성호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장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저자들을 포함한 국내외 우수 학자들의 논문 투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 그리고 이러한 학술 활동 이외에도 사할린영주귀국주민들과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들이 등재지로 유지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이 분야 우수학술지로 성장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는 지난 2003년 6월 인문학연구원 소속으로 설립돼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을 포함하는 러시아 및 슬라브권 국가의 언어, 문학, 문화, 역사, 사회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산업, 학술, 교육 교류 등 이들 국가와의 관계 증진 및 이를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대에 기여하고 있다.

(베리타스알파)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Электронный форма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зволяет в минимальные сроки и в удобное для заявителя время получить справки и документы, оформить выплаты по линии фонда и управлять их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на сайте ПФР все услуги структурированы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пенсии,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и прочие) и по доступу к ним (с регистрацией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Так, разделы "Заказ справок и документов",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Задать вопрос онлайн" доступны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Все остальные услуги фонда (подача различных заявлений),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требую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поэтому реализуются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у гражданина подтвержденной учетной запис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Желающие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подтвердить учетную запись или восстановить пароль от портала госуслуг,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клиентские службы ПФР в любой рабочий день (прием граждан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С собой гражданину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аспорт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Выбрать время и дату приема можно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на сайте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 услуга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 или позвонив в клиентскую службу по месту получения услуги. Телефонные номера указаны на сайте ПФР (регио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разделе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драздел "Граж-

данам"). Еще один способ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есплатным мобильным приложением "ПФР. Электронные сервисы".

В отделе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граждан и страхователей работает многоканальный телефон — 8 (800) 600 07 48. Звонок на этот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бесплатный из любого региона России (как со стационарных, так и с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сообщает ОПФР.

모네론 섬의 해저, 카리브해의 해저와 유사하다며 잠수사들 감탄

모네론 섬을 방문한 잠수사들이 이 섬의 해저 탐색을 권하고 있다. 민간 잠수사들은 사할린 섬들의 해저세계가 카리브해의 해저와 유사함을 언급하며, 난류의 흐름과 풍부한 해양 생물에 크게 감탄했다.

충족감을 맞본 잠수사들은 사할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모네론 섬의 해저 잠수 관광을 권하고 있다. 이곳에서 잠수사들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해저 돌출부, 무성한 해초, 바닥에 깔린 석계들, 해삼과 가리비들로 가득한 놀라운 해저 세계를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해저 조명이 신비로운 동화 속 세계로 이끌어 가는 가운데 해저 가시거리는 20m이고, 수온은 최고 14도이다. 쓰시마 섬 바다로부터 난류가 유입되고 있어 잠수사들에게 이곳은 정말 자신이 카리브해나 심지어 지중해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놀라움을 갖게 한다고 한다. 모네론 섬

해저 관광객들은 필리핀, 그린란드, 심지어 남극에서도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 모네론 섬의 풍성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해저세계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에게 모네론 섬의 해저세계 탐색을 강력 추천하고 있다.

Дайверы восхитились морским дном острова Монорон и сравнили его с Карибами

Дайверы, побывавшие на Монороне, советуют нырнуть на дно вблизи этого острова. Любители дайвинга сравнили подводный мир сахалинского острова с Карибами. Их по-настоящему удивило теплое течение и изобилие морских обитателей.

Заядлые дайверы советуют туристам, посещающим Сахалин, побывать на морском дне в водах острова Монорон. Там он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удивительным подводным миром: восхитительный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й рельеф, буйство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россыпи морского ежа, трепанга и гребешка. Прекрасное освещение превращает погружение в посещение сказочного мира. Видимость под водой составляет 20 метров, а температура — не меньше 14 градусов. Теплым воду делает попадающее в море Цусимское течение. Эт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дайверу совершенно неожиданную для этих мест возможность ощутить себя если уж не на Карибах, т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Средиземном море.

Туристы отметили, что где они только не погружались: на Филиппинах, в Гренландии и даже в Антарктиде, но такого изобилия и красивого наполнения не видели нигде. Они активно советуют все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дводным миром Монорон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욱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